

지역민의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 지역 소속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권 혁*

울릉군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단체이며, 특히 독도는 영토로서의 상징적, 군사 안보적,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도는 한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독도이용법)에서와 같이 국가가 독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문제의 원인으로부 터 발생되었으며, 그간 울릉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66년 약 22,000명, 1975년 약 30,000명, 1985년 약 17,000명, 1995년 약 11,000명, 2000년 약 10,000명, 2010년 약 10,700명, 2020년 약 9,000명, 2022년 8월 기준 약 9,000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울릉군’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 지역 소속감,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 중부대학교, 조교수, khjb0830@joongbu.ac.kr

본 연구를 위해 울릉군이 만 1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2020년 08월 20일부터 09월 04일까지 생활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 중 유의한 설문 541부를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자리만족도, 문화시설(독도), 사회안전은 행복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건강과 미래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소득은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 터전의 사회 안전이 확보될 때 지역민의 행복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울릉군은 60세 이상의 행복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1인 독거노인을 위한 선별적 고령층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울릉군은 독도를 포함해 중요한 군사 안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회 안전에 대한 보장이 확보될 때 행복감이 더욱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반 균열과 침하에 대한 준비, 안보 준비 태세 강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동체의식은 지역 소속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위해선 연령대별로 공동체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설계 및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일자리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가구 소득 구간을 고려한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발전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한 나라의 국가 정책 및 국민경제의 전체적 규모나 구조 변동 등을 파악할 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가정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벨’이 더욱 강조되면서 기존 GDP와 같은 경제 지표가 국민 삶의 질을 파악할 때 한

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복, 삶의 만족, 지역 공동체 회복과 복원이라는 리빙랩이 강조되면서 웰빙 측정도 파악을 위해 OECD의 Better Life Index, 웰빙경제(Beyond GDP)를 측정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Ilić, Milić, & Arandelović, 2010; Smith & Hoekstra, 2011).

특히 통합적 커뮤니티 웰빙은 지역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정치의 적절한 융합이라고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지역민 관점에서 커뮤니티 웰빙을 정의하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소속감(애착), 지역 환경,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시설 등을 고려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민이 지역을 살아갈 때 느끼는 개인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정치적, 물리적 등 여러 욕구가 충족될 때 커뮤니티 웰빙의 만족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이승중 외, 2013; Forjaz et al., 2011).

이처럼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성과 지역민이 느끼는 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지역민의 행복 수준, 삶의 만족, 지역 소속감 등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장래 인구 통계에서 세계 인구는 2022년 약 80억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의 인구는 2022년 약 5천2백만 명에서 2070년 3천8백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통계청,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울릉군’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 삶의 만족, 지역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경상북도 울릉군이 한국의 최동단에 위치해 있고,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 속해 있는 중요한 지자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울릉군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단체이며, 특히 독도

는 영토로서의 상징적, 군사 안보적,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도는 한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독도 이용법)에서와 같이 국가가 독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한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되었고, 지역사회 특성을 분석할 때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그간 울릉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66년 약 22,000명, 1975년 약 30,000명, 1985년 약 17,000명, 1995년 약 11,000명, 2000년 약 10,000명 2010년 약 10,700명, 2020년 약 9,000명, 2022년 8월 기준 약 9,000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출, 전입인구, 인구 증가율, 가구 특성별, 노인인구 실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출 인구를 보면 1995년 1,657명, 2000년 1,292명, 2005년 1,156명, 2010년 2,241명, 2015년 1,740명, 2020년 1,762명, 2021년 1,486명이며, 전입인구는 1995년 1,415명, 2000년 1,083명, 2005년 1,504명, 2010년 2,494명, 2020년 1,647명, 2021년 1,394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인구증가율로 살펴보면 2012년 -0.44%, 2013년 -1.25%, 2014년 -2.50%, 2015년 -1.12%, 2016년 -1.29%, 2017년 -0.20%, 2018년 -1.11%, 2019년 -2.29%, 2020년 -5.70%, 2021년 -2.36%로 나타나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997년 124명, 2000년 106명, 2005년 64명, 2010년 50명, 2015년 55명, 2020년 30명, 2021년 26명이 태어났고, 가구 특성별로 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표 1> 1인구가구비율(울릉군·경상북도)

구 분	연도	1인가구비율(%)	1인가구(수)	일반가구(수)
울릉군 경상북도	2000	20.9	766	3,669
		18.5	163,919	887,917
울릉군	2005	28.1	994	3,532

구 분	연도	1인가구비율(%)	1인가구(수)	일반가구(수)
경상북도		23.9	224,611	938,840
울릉군	2010	32.8	1,145	3,494
경상북도		28.8	289,704	1,005,349
울릉군	2015	39.3	1,583	4,031
경상북도		30.4	322,569	1,062,724
울릉군	2016	41.3	1,644	3,979
경상북도		31.3	336,547	1,076,581
울릉군	2017	40.3	1,641	4,072
경상북도		31.9	346,998	1,087,807
울릉군	2018	42.0	1,739	4,145
경상북도		32.3	353,702	1,094,534
울릉군	2019	40.9	1,661	4,061
경상북도		32.7	360,213	1,102,934
울릉군	2020	42.1	1,734	4,116
경상북도		34.4	388,791	1,131,819
울릉군	2021	44.7	1,850	4,135
경상북도		36.0	416,697	1,156,645

이에 지역민의 정주성을 함양하고,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12.6%로 나타났으며, 울릉군의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독거노인비율(울릉군)

연도	독거노인 가구비율(%)	65세 이상 1인가구비율(%)	전체 일반가구(수)
2000	7.2	266	3,669
2005	10.8	380	3,532
2010	12.9	449	3,494
2015	9.5	382	4,031
2016	10.0	397	3,979
2017	10.0	407	4,072

2018	10.7	444	4,145
2019	11.0	445	4,061
2020	12.3	507	4,116
2021	12.6	520	4,135

이처럼 울릉군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CWB) 모형을 기반으로 한 5개 자본(경제자본, 문화자본, 자연 자본, 인프라 자본, 사회자본)을 지역민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로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이승중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민의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 삶의 만족, 지역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울릉군 지역민의 정주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1.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와 행복 수준, 삶의 만족

웰빙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열망, 삶의 유형, 문화 등을 포괄한 의식 및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가리키는 뜻으로 정의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친 영국의 산업혁명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의 산업화로 이어져 산업사회로 발전했고, 인간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부를 축적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으로 인해 정신적 여유를 앗아간 면도 많고 있다.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빈부 격차로 이어져 우울증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주목받는 삶의 질, 워라벨, 행복, 웰빙 등에 대한 관심, 논의,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Manderson, 2005).

한국의 경우 급격한 빈부 격차로 맞벌이 비율이 높은 편이며, 자세한 맞벌이 가구 비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현재 정부가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순차적으로 개정 중에 있으나, 충분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현실적인 저출산 정책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e-나라지표, 2022)

<표 3> 한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

연도	유배우 가구 (단위: 천가구)	맞벌이 가구 (단위: 천가구)	비율(%)
2013	11,940	5,175	43.3
2014	12,049	5,331	44.2
2015	12,139	5,358	44.1
2016	12,190	5,545	45.5
2017	12,224	5,456	44.6
2018	12,245	5,675	46.3
2019	12,305	5,662	46.0
2020	12,332	5,593	45.4

다음으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로 보지만, 학계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외부적 관찰이 아닌 개인이 느끼는 평가에 의거하여 행복도와 행복감을 측정하고 이를 ‘주관적 안녕감’으로 정의하였다(Diender, 1984).

유엔(UN)이 발표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도는 OECD 회원 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 146개국 중 5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더 나아지지 않을 거란 심리, 주택, 소득, 가계 부채, 일자리 등에 대한 사회 현안 문제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복 지표는 나라별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조사하고, 1인당 국내 총생산(GDP)와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 삶의 선택 자유, 관용 등을 포함하여 합산한 결과로 자세한 순위는 아래 <표 4>와 같다(2021, World Happiness Report).

<표 4> 국가별 행복도 시민의식 조사

세계 행복지수 순위(146개국)			OECD 행복지수 순위(38개국)		
상위 10위	주요 국가	하위 10위			
1.핀란드	16. 미국	137.잠비아	1.핀란드	14.독일	27.에스토니아
2.덴마크	26. 대만	138.말라위	2.덴마크	15.캐나다	28.라트비아
3.아이슬란드	54. 일본	139. 탄자니아	3.아이슬란드	16.미국	29.칠레
4.스위스	59. 한국	140. 시에라리온	4.스위스	17.영국	30.멕시코
5.네덜란드	72. 중국	141.레소토	5.네덜란드	18.체코	31.폴란드
6.룩셈부르크	-	142. 보츠와나	6.룩셈부르크	19.벨기에	32.헝가리
7.스웨덴	-	143.르완다	7.스웨덴	20.프랑스	33.일본
8.노르웨이	-	144. 짐바브웨	8.노르웨이	21.슬로베니아	34.포르투갈
9.이스라엘	-	145.레바논	9.이스라엘	22.코스타리카	35.그리스
10.뉴질랜드	-	146.아프가니스탄	10.뉴질랜드	23.스페인	36.한국
			11.오스트리아	24.이탈리아	37.콜롬비아
			12.호주	25.리투아니아	38.터키
			13.아일랜드	26.슬로바키아	

물질적인 풍요와 부는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리지만, 가족관계, 정서적 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에 목격(North&Cronkite, 2008) 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 수준에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삶의 만족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뜻하며, 신체적 건강, 정신 상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Suh & Fujita, 1996).

다음으로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웰빙은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여 사회 및 경제의 영역, 환경 영역, 정치 및 관계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적, 경제, 자연, 인프라, 문화, 사회 총 6개 자원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자본은 보건, 복지, 교육, 경제자본은 고용, 지방재정, 지역 경제, 자연 자본은 환경, 인프라 자본은 교통 시스템, ICT, 안전, 문화자본은 문화활동, 지역 문화공간, 지역 문화자산, 사회자본은 규범, 네트워크, 참여, 신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이승중 외, 2013).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5개구에 거주하는 성인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보건, 복지, 교육), 경제자본(고용, 지방재정, 지방경제)은 주관적 삶의 질(행복 수준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자본(시민 참여)과 문화자본(문화활동)은 주관적 삶의 질(행복 수준 및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 효과를 통한 우선순위로 보면 인적자본이 가장 높은 유의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제자본 순으로 파악되었다(서인석 외, 2015).

둘째, 커뮤니티 웰빙 특성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생활환경과 주관적 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자연환경(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등) 지표는 경남→충북→경북 순으로 나타났고, 인프라(대중교통, 도로 상태 등) 자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순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그중 교통 시스템은 인천이 가장 높고, ICT 지표의 경우 서울이 가장 높게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쾌적한 생활 환경 여건 조성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벤치 마킹하여 각 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적용 및 확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기영화&정서린, 2018).

정리하면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와 행복 수준 및 삶의 만족과의 관련 연구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을 포함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커뮤니티 웰빙 특성을 파악한다면 지역민의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커뮤니티 웰빙과 지역 소속감

전통사회에서 ‘지역사회’란 개인 간, 집단 간 유대 형성 정도를 말하며, 감정적 관계가 깊을수록 강한 소속감을 지닌다고 하였다. 산업화, 정보화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점진적으로 개인화되면서 ‘지역사회’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 정의한 바 있다(Tönnies, 1999; Goudy, 1992). 그리고 소속감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 소속감은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소속감을 뜻한다. 즉, 지역민의 지역 소속감 정도를 분석한다면, 특정 지역 사회가 얼마나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 국민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살펴보면 2013년 64.0%에서 2014년 62.5%로 2016년 56.9%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2019년 64.4%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19~29세가 57.9%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30대~39세는 60.3%로 파악되어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고, 60세 이상 연령대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소속감에 대한 성별, 연령별 추이는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e-나라지표, 2022).

27개 기초 지방정부의 지역 소속감을 살펴보면 충남 태안군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북 영동군→전북 임실군→경남 하동군→충남 당진시로 나타났으며, 가장 소속감이 낮은 지역으로는 서울 동대문구→서울 마포구→경기 광명시→서울 구로구→서울 강남구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경북권의 경우 경북 안동시가 10위, 경북 영덕군이 7위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가구 이동 건수가 높은 수도권보다 지방 소도시의 지역 소속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기영화 외, 2019).

다음으로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소속감을

<표 5> 한국의 지역사회 소속감 [단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64.0	62.5	62.5	56.9	62.1	69.2	64.4	
성별	남자	61.9	61.9	62.0	55.3	61.8	68.6	62.5
	여자	63.1	63.1	63.0	58.6	62.4	69.9	66.4
연령	19~29세	55.6	55.6	57.3	48.2	52.4	59.9	57.9
	30~39세	55.9	55.9	54.9	49.2	57.0	66.5	60.3
	40~49세	61.7	61.7	60.7	55.1	61.4	69.1	63.8
	50~59세	69.7	69.7	68.6	63.9	69.1	75.5	67.9
	60~69세	73.1	73.1	74.7	71.6	72.5	75.4	72.9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박정민 외, 2022).

그리고 27개 시군구 성인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웰빙 특성이 지역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인적자본과 인프라 자본은 지역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문화자본은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자본과 자연자본은 지역 소속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기영화 외, 2019).

따라서 지자체는 커뮤니티 웰빙에 대해 지역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분석하여 지역 소속감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측정 시도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웅진군·울릉군 지역 사회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 울릉군과 비교하기 위해 선정한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의 웅진군이다. 현재 2022년 08월 기준 총인구수는 20,620명으로 남자 인구가 11,733명, 여자 인구가 8,887명으로 나타났고,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등 울릉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웅진군 지역민의 지역 거주 기간

은 평균 29.4년으로 10년 미만인 경우가 29.5%로 가장 많고 뒤이어 60년 이상이 20%로 나타났다. 이에 정주 의사는 75%로 파악되었고, 현 거주지 선택 이유로 옛날부터 살던 곳이라서가 53.3%, 경제적 여건이 44.1%, 배우자나 부모를 따라서 3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웅진군과 울릉군의 지역사회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면 첫째, 미취학 자녀 보육 방법을 비교해 보면 웅진군의 미취학 자녀의 주된 교육방식은 어린이집이 47.2%, 유치원 45.8%, 본인이나 배우자가 7%로 파악되었으며, 보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41.9%로 나타났고, 울릉군은 보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님이 매우 높고, 어린이집이 45.5%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둘째, 웅진군의 경우 문화여가시설에 대해선 57.6%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39세에서 문화여가시설 만족도가 가장 높게 파악되었지만, 울릉군의 문화시설 만족도는 보통 47.2%, 약간 만족 38.9% 순으로 나타났고,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로 여가시설 부족이 49.5%,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이 18.4%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다양한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신설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셋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웅진군의 경우 주택 만족도가 가장 높고, 주차장 이용→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 시설로 나타났지만 울릉군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가장 높고 주택→주차장 이용 순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주차장 이용의 경우 불만족 응답은 연령별로 29세 이하가 67.4%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차장 이용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웅진군민은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여객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내, 마을버스로 파악되었으며, 울릉군은 시내, 마을버스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중교통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 안전은 웅진군의 경우 5점 만점에 3.56점으로 전년 대비 0.46점 낮아졌고, 정보 보안 3.78점, 화재 3.75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자연재해 3.47점, 국가 안보 3.41점으로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울릉군민의 경우 29.9%가 안전하다고 느낀 반면, 14.1%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먹거리, 범죄 위협,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신종감염병, 자연재해, 국가 안보

등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신종감염병, 자연재해, 국가 안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통계청 시민사회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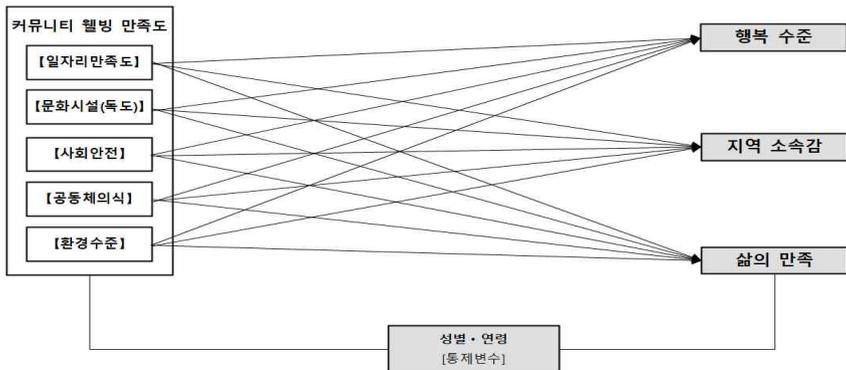
이처럼 군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영역별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울릉군의 지역개발과 복지정책 추진 시 군민의 교통 및 신종감염병, 자연재해, 국가 안보를 고려한 안전 정책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 모형은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 지역 소속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는 일자리 만족도, 문화시설(독도), 사회안전, 공동체의식, 환경수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행복 수준, 지역 소속감,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1)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와 행복 수준

서울시 5개구에 거주하는 성인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보건, 복지, 교육), 경제자본(고용, 지방재정, 지방경제)은 주관적 삶의 질(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자본(시민참여)과 문화자본(문화활동)은 주관적 삶의 질(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접 효과를 통한 우선순위로 보면 인적자본이 가장 높은 유의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제자본 순으로 파악되었다(서인석 외, 2015).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설계하였다.

H1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는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일자리만족도는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문화시설(독도)은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사회안전은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공동체의식은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환경수준은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와 지역 소속감

전통사회에서 '지역사회'란 개인 간, 집단 간 유대 형성 정도를 말하며, 감정적 관계가 깊을수록 강한 소속감을 지닌다고 하였다. 산업화, 정보화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점진적으로 개인화되면서 '지역사회'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 정의한 바 있다(Tönnies, 1999; Goudy, 1992). 그리고 소속감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 소속감은 현재 거주 지역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소속감을 뜻한다. 즉, 지역민의 지역 소속감 정도를 분석한다면, 특정 지역 사회가 얼마나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설계한 연구 가설

은 다음과 같다.

- H2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는 지역 소속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일자리만족도는 지역 소속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문화시설(독도)은 지역 소속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사회안전은 지역 소속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공동체의식은 지역 소속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5 환경수준은 지역 소속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와 삶의 만족

커뮤니티 웰빙 특성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생활환경과 주관적 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자연환경(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등) 지표는 경남→충북→경북 순으로 나타났고, 인프라(대중교통, 도로 상태 등) 자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 순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그중 교통 시스템은 인천이 가장 높고, ICT 지표의 경우 서울이 가장 높게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쾌적한 생활 환경 여건 조성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외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벤치 마킹하여 각 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적용 및 확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기영화&정서린, 2018).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계하였다.

- H3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일자리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문화시설(독도)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사회안전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4 공동체의식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5 환경수준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울릉군이 만 1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2020년 08월 20일부터 09월 04일까지 군민생활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한 설문 541부를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일자리만족도, 문화시설(독도), 사회안전, 공동체의식, 환경수준), 행복 수준, 지역 소속감, 삶의 만족이며, 자세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조작적 정의

변수군	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만 나이
	주택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점유형태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교육정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졸
	경제활동 상태	취업상태, 비취업상태 등
커뮤니티 웰빙만족도	일자리만족도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대한 만족 정도
	문화시설(독도)	문화시설 만족 및 독도 발전 방향
	사회안전	각 분야별(범죄, 감염병, 정보보안 등) 안전 인식
	공동체의식	지역 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낀 공동체 의식 정도
	환경수준	주위 환경에 대해 평소 느낀 점

행복 수준	건강상태, 성취감, 미래 안정성 등
지역 소속감	지역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인식 등
삶의 만족	최근 자신의 삶의 만족, 지역의 생활 만족 등

V. 실증 분석 및 가설 검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음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을 보면 남성 278명(51.4%), 여성 263명(49.6%)로 남성이 더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21명(3.9%), 30~39세 35명(6.4%), 40~49세 65명(12.0%), 50~59세 124명(23.0%), 60~69세 139명(25.7%), 70세 이상 157명(29.0%)로 나타나 70세 이상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 주택 형태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378명(69.8%), 아파트 17명(3.2%), 연립/다세대 125명(23.1%), 기타 21명(3.9%)로 나타나 단독주택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점유형태는 자기 집 328(60.6%), 전세 22명(4.0%), 보증금 있는 월세 42명 (7.8%), 보증금 없는 월세 78명(14.4%), 무상 71명(13.2%)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는 일하였음 428명(79.2%),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 5명(0.9%), 재학 또는 진학 16명(2.9%), 육아 또는 가사 52명(9.6%), 쉬었음 39명(7.2%), 기타 1명(0.2%)로 파악되었다.

<표 7>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빈도(N)	비율(%)
· 성별	· 남성	278	51.4
	· 여성	263	48.6
· 연령	29세 이하	21	3.9
	30-39세	35	6.4
	40-49세	65	12.0
	50-59세	124	23.0

62 한동해의 중심 울릉도·독도

	60-69세	139	25.7
	70세이상	157	29.0
주택형태	단독주택	378	69.8
	아파트	17	3.2
	연립/다세대	125	23.1
	기타	21	3.9
점유형태	자기집	328	60.6
	전세	22	4.0
	보증금 있는 월세	42	7.8
	보증금 없는 월세	78	14.4
	무상	71	13.2
경제활동 상태	일하였음	428	79.2
	구직활동	3	0.5
	취업준비	2	0.4
	재학 또는 진학	16	2.9
	육아 또는 가사	52	9.6
	쉬었음	39	7.2
	기타	1	0.2

1)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

다음 연구 표본의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만족도는 불만족 43명(7.9%), 보통 306명(56.6%), 만족 192명(35.5%)로 일자리만족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시설은 매우 불만족 20명(3.7%), 약간 불만족 22명(4.0%), 보통 255명(47.1%), 약간 만족 210명(38.9%), 매우 만족 34명(6.4%)로 파악되었고, 독도 발전 방향에 대해선 접안 시설 185명(34.3%), 편의시설 및 기념품점 25명(4.6%), 탐방로 확대 200명(37%), 체류시간 연장 122명(22.5%), 기타 9명(1.6%)로 나타났다. 이처럼 독도 문화 관광 코스 개발과 더불어 독도 방문객 안전 및 독도 방문객 증가를 위한 접안시설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회안전은 불안 133명(24.6%), 보통 307명(56.7%), 안전 101명(18.6%)로 나타났으며, 울릉군의 경우 강우, 강설로 인한 지반 균열과 침하

현상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 독도를 포함해 군사 안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공동체 의식(모임 참여 적극성 등)에 대해선 그렇다 187명(34.7%), 보통 137명(25.3%), 그렇지 않다 217명(40.1%)으로 파악되어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환경수준(쓰레기 방치 등)은 그렇다 26명(4.8%), 보통 125명(23.2%), 그렇지 않다 390명(72.0%)로 파악되어 대체적으로 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 특성

변수		빈도(N)	비율(%)
· 일자리만족도	· 불만족	43	7.9
	· 보통	306	56.6
	· 만족	192	35.5
· 문화시설	· 매우 불만족	20	3.7
	· 약간 불만족	22	4.0
	· 보통	255	47.1
	· 약간 만족	210	38.9
	· 매우 만족	34	6.4
· 독도 발전 방향	· 접안 시설	185	34.3
	· 편의시설 및 기념품점	25	4.6
	· 탐방로 확대	200	37.0
	· 체류시간 연장	122	22.5
	· 기타	9	1.6
· 사회안전 (국가안보 등)	· 불안	133	24.6
	· 보통	307	56.7
	· 안전	101	18.6
· 공동체 의식 (모임 참여 적극성 등)	· 그렇다	187	34.7
	· 보통	137	25.3
	· 그렇지않다	217	40.1
· 환경수준 (쓰레기 방치 등)	· 그렇다	26	4.8
	· 보통	125	23.2
	· 그렇지않다	390	72.0

2) 행복 수준

다음 연구 표본의 행복 수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생활수준(5.7점), 건강 상태(5.3점), 성취도(5.6점), 대인관계(5.9점), 미래 안정성(5.4)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모든 행복 수준이 하락하였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생활수준(6.2점), 건강 상태(7.0점), 성취도(6.1점), 대인관계(6.5점), 미래 안정성(5.7점), 30-39세는 생활수준(5.9점), 건강 상태(6.0점), 성취도(6.0점), 대인관계(6.4점), 미래 안정성(5.8점), 40-49세는 생활수준(5.7점), 건강 상태(5.8점), 성취도(5.6점), 대인관계(5.9점), 미래 안정성(5.6점), 50-59세는 생활수준(5.6점), 건강 상태(5.4점), 성취도(5.6점), 대인관계(5.7점), 미래 안정성(5.4점), 60세 이상 생활수준(5.5점), 건강 상태(4.3점), 성취도(5.3점), 대인관계(5.6점), 미래 안정성(5.2점)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생활수준(5.1점), 건강 상태(3.9점), 성취도(5.0점), 대인관

<표 9> 행복 수준(10점 만점)

항목	생활수준	건강상태	성취도	대인관계	미래안정성	
· 2019	5.8	5.8	5.8	6.2	5.7	
· 2020	5.7	5.3	5.6	5.9	5.4	
· 연령	29세 이하	6.2	7.0	6.1	6.5	5.7
	30-39세	5.9	6.0	6.0	6.4	5.8
	40-49세	5.7	5.8	5.6	5.9	5.6
	50-59세	5.6	5.4	5.6	5.7	5.4
	60세 이상	5.5	4.3	5.3	5.6	5.2
가구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1	3.9	5.0	5.4	4.9
	100-200만원 미만	5.5	5.3	5.7	6.0	5.3
	200-300만원 미만	5.6	5.2	5.4	5.8	5.4
	300-400만원 미만	5.9	5.6	5.7	6.0	5.6
	400-500만원 미만	5.8	5.5	5.7	5.7	5.7
	500만원 이상	6.3	6.5	6.1	6.4	6.0

계(5.4점), 미래 안정성(4.9점), 100-200만원 미만 생활수준(5.5점), 건강 상태(5.3점), 성취도(5.7점), 대인관계(6.0점), 미래 안정성(5.3점), 200-300만원 미만 생활수준(5.6점), 건강 상태(5.2점), 성취도(5.4점), 대인관계(5.8점), 미래 안정성(5.4점), 300-400만원 미만 생활수준(5.9점), 건강 상태(5.6점), 성취도(5.7점), 대인관계(6.0점), 미래 안정성(5.7점), 400-500만원 미만 생활수준(5.8점), 건강 상태(5.5점), 성취도(5.7점), 대인관계(5.7점), 미래 안정성(5.7점), 500만원 이상 생활수준(6.3점), 건강 상태(6.5점), 성취도(6.1점), 대인관계(6.4점), 미래 안정성(6.0점)으로 파악되었다.

3) 지역 소속감

다음 연구 표본의 지역 소속감 특성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기준 ‘동네’에 대해 없다(41.9%), 있다(58.1%), ‘시군’ 없다(48.3%), 있다(51.7%), ‘경북’ 없다(60.1%), 있다(39.9%)로 파악되어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로, 지역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동네’에 대해 없다(52.4%), 있다(47.6%), ‘시군’ 없다(49.9%), 있다(50.1%), ‘경북’ 없다(53.2%), 있다(48.8%), 30-39세 이하 ‘동네’에 대해 없다(63.4%), 있다(36.6%), ‘시군’ 없다(51.3%), 있다(48.7%), ‘경북’ 없다(63.5%), 있다(36.5%), 40-49세 이하 ‘동네’에 대해 없다(52.4%), 있다(47.6%), ‘시군’ 없다(55.7%), 있다(44.3%), ‘경북’ 없다(65.9%), 있다(34.1%), 50-59세 이하 ‘동네’에 대해 없다(38.2%), 있다(61.8%), ‘시군’ 없다(47.6%), 있다(52.4%), ‘경북’ 없다(62.3%), 있다(37.7%), 60세 이상 ‘동네’에 대해 없다(30.7%), 있다(69.3%), ‘시군’ 없다(44.5%), 있다(55.5%), ‘경북’ 없다(57.9%), 있다(42.1%)로 파악되었으며, 동네에 대한 소속감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고, 시군에 대해선 소속감은 60세 이상→50-59세→29세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에 대한 소속감은 29세 이하에서 가장 높은 소속감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된 바, 연령별 특성에 따라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표 10> 지역에 대한 소속감

항목		동네		시군		경북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 2019		27.2	72.8	26.7	73.3	44.6	55.4
· 2020		41.9	58.1	48.3	51.7	60.1	39.9
· 연령	29세 이하	52.4	47.6	49.9	50.1	53.2	48.8
	30-39세	63.4	36.6	51.3	48.7	63.5	36.5
	40-49세	52.4	47.6	55.7	44.3	65.9	34.1
	50-59세	38.2	61.8	47.6	52.4	62.3	37.7
	60세 이상	30.7	69.3	44.5	55.5	57.9	42.1
가구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42.9	57.1	58.7	41.3	68.1	31.9
	100-200만원 미만	48.8	51.2	58.7	41.3	69.2	30.8
	200-300만원 미만	37.2	62.8	38.7	61.3	49.3	50.7
	300-400만원 미만	41.7	58.3	45.2	54.8	61.3	38.7
	400-500만원 미만	27.7	72.3	46.3	53.7	55.2	44.8
	500만원 이상	44.7	55.3	44.5	55.5	59.4	40.6

4) 삶의 만족

다음 연구 표본의 삶의 만족 특성은 다음과 같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6.1점)로 전년(6.3) 대비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6.6점), 30-39세(6.2점), 40-49세(6.4점), 50-59세(6.1점), 60세 이상(5.9점)으로 29세 이하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삶의 만족(10점 만점)

항목	삶에 대한 만족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
· 2019	6.3	-
· 2020	6.1	6.0

· 연령	29세 이하	6.6	6.4
	30-39세	6.2	6.0
	40-49세	6.4	5.9
	50-59세	6.1	5.9
	60세 이상	5.9	5.9
가구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7	5.7
	100-200만원 미만	6.1	6.0
	200-300만원 미만	6.0	6.0
	300-400만원 미만	6.2	5.9
	400-500만원 미만	6.3	6.2
	500만원 이상	6.9	6.1

2.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먼저 요인 타당도와 신뢰성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표 12>와 같다. 먼저 요인 분석 결과 일자리만족도, 문화시설(독도), 사회안전, 공동체의식, 환경수준, 행복 수준, 지역 소속감, 삶의 만족 모두 타당도가 확보되어 적재되었고,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항목	성분								신뢰도 cronbach's α	적재 값 (%)
	1	2	3	4	5	6	7	8		
일자리 만족도	.613	.307	-.147	.115	.010	.050	-.303	.370	.961	27. 563
	.762	.209	.004	-.021	.209	.154	.074	.397		
	.718	.383	-.149	.138	.220	-.018	-.087	.234		
	.781	.240	-.008	-.120	.147	.003	.267	.122		
	.790	.335	.038	-.089	.184	.181	.000	.151		

68 한동해의 중심 울릉도·독도

문화 시설 (독도)	.041	.502	-.106	.126	.066	.076	-.039	-.014	.675	40. 059
	-.589	.363	.211	-.160	-.109	-.077	-.009	.131		
사회 안전	.116	.173	.767	-.290	.169	-.262	-.107	.087	.873	50. 479
	.173	-.052	.831	.077	.236	.074	.104	-.111		
	-.145	-.049	.703	-.047	.450	-.101	.223	.087		
	.079	.033	.623	-.200	.461	.148	-.062	.114		
	.243	.002	.691	.099	.129	.191	-.132	.155		
	.273	-.192	.664	.115	.108	.154	.082	.462		
	.148	-.013	.810	.093	.164	.169	.006	-.110		
	.105	-.017	.871	.098	.184	-.196	.044	-.136		
	.021	-.004	.799	.062	.011	-.237	.033	.062		
공동 체의식	.301	-.085	.023	.804	.081	.227	-.027	-.013	.883	57. 132
	.279	-.032	-.063	.846	.010	.058	.060	-.022		
	.300	.012	-.079	.855	-.080	-.107	.166	.109		
	.326	.026	-.139	.769	-.020	-.150	.164	-.073		
	.137	.197	.078	.625	-.064	-.017	.200	.469		
환경 수준	.101	-.083	.293	.024	.704	.050	-.038	.399	.839	68. 572
	.083	.000	.089	-.018	.876	.202	.195	-.045		
	.113	.007	-.002	-.157	.854	.206	-.049	-.063		
	.299	-.055	.171	-.211	.727	.276	.183	-.012		
	.151	-.062	-.111	-.158	.846	.268	.171	.146		
행복 수준	-.002	.146	.157	.062	.043	.880	.167	.074	.920	73. 325
	.114	.100	.097	-.010	-.094	.886	-.022	.055		
	-.017	.144	.198	.031	-.058	.876	.086	.028		
	.103	.226	.203	-.012	.008	.835	.228	.026		
	-.325	.173	.177	.046	.004	.659	.146	.458		
	.154	.264	.008	.017	-.015	.787	.291	-.126		
	-.155	.107	.133	.163	.024	.829	.226	.244		
지역 소속감	.393	.451	-.025	.118	.167	.078	.620	-.056	.915	77. 365
	.367	.434	-.029	.120	.091	.169	.704	.095		

문화 시설 (독도)	.041	.502	-.106	.126	.066	.076	-.039	-.014	.675	40.059
	-.589	.363	.211	-.160	-.109	-.077	-.009	.131		
	.393	.553	.004	.047	.061	-.064	.535	.178		
삶의 만족	.236	.211	.247	-.084	-.115	-.001	-.058	.797	.903	80.692
	.204	.072	.130	.217	.094	.030	-.241	.832		
	.091	.097	.148	-.087	-.014	-.053	-.257	.861		
KMO and Bartlett test of sphericity test			KMO	.524						
			Chi-square	1908.351						
			df(p)	780						
			유의 확률	.000						

3.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고자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독립변수 중 일자리만족도, 공동체 의식은 모든 종속변수인 행복수준, 지역 소속감, 삶의 만족과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문화시설(독도)는 행복수준, 사회안전은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 환경수준은 삶의 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일자리 만족도	문화 시설 (독도)	사회 안전	공동체 의식	환경 수준	행복 수준	지역 소속감	삶의 만족
일자리 만족도	1	.390**	.177**	.120	-.032	.564**	.218**	.397**
문화시설 (독도)	.390**	1	-.021	.116	-.028	.362**	.190	.079
사회안전	.177**	-.021	1	.246**	-.044	.175**	-.082	.160**
공동체 의식	.120	.116	.246**	1	-.227**	.197**	.465**	.158**

환경수준	-.032	-.028	-.044	-.227**	1	.036	-.181**	.109*
행복수준	.564**	.362**	.175**	.197**	.036	1	.244**	.510**
지역 소속감	.218**	.190	-.082	.465**	-.181**	.244**	1	.107*
삶의만족	.397**	.079	.160**	.158**	.109*	.510**	.107*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4. 연구가설 검증

1)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와 행복 수준과의 관계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 확률 .000으로 분석되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14>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값	상한 값	공차	VIF	
(상수)	47.675	6.661		7.157	.000	34.233	61.117			
1	성별	-1.761	3.699	-.074	-.476	.637	-9.226	5.705	.981	1.020
	연령	.174	1.475	.018	.118	.907	-2.803	3.150	.981	1.020
(상수)	-29.567	10.530		-2.808	.008	-50.833	-8.302			
2	성별	1.655	2.378	.070	.696	.490	-3.147	6.457	.949	1.054
	연령	.350	.933	.037	.375	.710	-1.534	2.233	.980	1.020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	.783	.098	.793	8.003	.000	.586	.981	.965	1.036	

-종속변수: 행복 수준

그리고 커뮤니티 웰빙 특성의 개별 요인 중 일자리만족도, 문화시설(독도), 사회안전은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 1-2, 1-3은 채택된 반면, 공동체의식(.513), 환경 수준(.487)은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가설 1-4, 1-5는 기각되었다.

<표 15>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 개별 특성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값	상한 값	공차	VIF	
(상수)	47.675	6.661		7.157	.000	34.233	61.117			
1	성별	-1.761	3.699	-.074	-.476	.637	-9.226	5.705	.981	1.020
	연령	.174	1.475	.018	.118	.907	-2.803	3.150	.981	1.020
(상수)		-18.379	9.451		-1.945	.059	-37.527	.770		
	성별	1.299	2.108	.055	.617	.541	-2.971	5.570	.871	1.148
	연령	-.555	.821	-.058	-.677	.503	-2.218	1.107	.914	1.095
2	A1	2.061	.357	.673	5.776	.000	1.338	2.784	.504	1.985
	A2	.835	.383	.201	2.183	.035	.060	1.610	.802	1.247
	A3	.328	.176	.163	1.864	.070	-.029	.684	.891	1.122
	A4	.196	.298	.068	.660	.513	-.407	.799	.643	1.555
	A5	.193	.275	.063	.702	.487	-.364	.750	.848	1.180

- 종속변수: 행복 수준

A1:일자리만족도, A2:문화시설(독도), A3:사회안전, A4:공동체의식, A5:환경수준

2)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와 지역 소속감의 관계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지역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 확률 .000으로 분석되어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16>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지역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값	상한 값	공차	VIF	
(상수)	8.393	1.203		6.979	.000	5.967	10.820			
1	성별	-.932	.668	-.211	-1.396	.170	-2.280	.416	.981	1.020
	연령	.292	.266	.166	1.098	.278	-.245	.830	.981	1.020
(상수)	-2.922	2.354		-1.241	.222	-7.677	1.833			
2	성별	-.432	.532	-.098	-.813	.421	-1.506	.642	.949	1.054
	연령	.318	.209	.180	1.526	.135	-.103	.739	.980	1.020
커뮤니티 웰빙만족도	.115	.022	.624	5.244	.000	.071	.159	.965	1.036	

-종속변수: 지역 소속감

그리고 커뮤니티 웰빙 특성의 개별 요인 중 공동체 의식은 지역 소속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는 채택된 반면, 일자리만족도, 문화시설(독도), 사회안전, 환경수준은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가설 2-1, 2-2, 2-3, 2-5는 기각되었다.

<표 17>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 개별 특성이 지역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값	상한 값	공차	VIF	
(상수)	8.393	1.203		6.979	.000	5.967	10.820			
1	성별	-.932	.668	-.211	-1.396	.170	-2.280	.416	.981	1.020
	연령	.292	.266	.166	1.098	.278	-.245	.830	.981	1.020
(상수)	-1.804	2.264		-.797	.431	-6.393	2.784			
2	성별	-.324	.505	-.073	-.641	.526	-1.347	.700	.871	1.148
	연령	.271	.197	.154	1.380	.176	-.127	.670	.914	1.095

A1	.107	.085	.188	1.255	.217	-.066	.281	.504	1.985
A2	.060	.092	.078	.655	.516	-.126	.246	.802	1.247
A3	.023	.042	.060	.536	.595	-.063	.108	.891	1.122
A4	.285	.071	.531	3.999	.000	.141	.430	.643	1.555
A5	.105	.066	.185	1.600	.118	-.028	.239	.848	1.180

-종속변수: 지역 소속감

A1:일자리만족도, A2:문화시설(독도), A3:사회안전, A4:공동체의식, A5:환경수준

3)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와 삶의 만족의 관계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 확률 .000으로 분석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18>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베타			하한 값	상한 값	공차	VIF
(상수)	25.063	2.837			8.834	.000	19.337	30.789		
1	성별	-1.585	1.576	-.154	-1.006	.320	-4.765	1.595	.981	1.020
	연령	.558	.628	.136	.888	.379	-.710	1.826	.981	1.020
(상수)	1.673	5.972			.280	.781	-10.387	13.734		
2	성별	-.551	1.348	-.053	-.409	.685	-3.274	2.172	.949	1.054
	연령	.611	.529	.149	1.156	.255	-.457	1.680	.980	1.020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	.237	.055	.555	4.273	.000	.125	.349	.965	1.036	

-종속변수: 삶의 만족

그리고 커뮤니티 웰빙 특성의 개별 요인 중 일자리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은 채택된 반면, 문화시설

74 환동해의 중심 울릉도·독도

(독도), 사회안전, 공동체의식, 환경수준은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가설 3-2, 3-3, 3-4, 2-5는 기각되었다.

<표 19>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 개별 특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공차	통계량 VIF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값	상한 값		
(상수)	21.628	3.249		6.656	.000	15.071	28.185		
1									
성별	-1.476	1.805	-.126	-.818	.418	-5.118	2.166	.981	1.020
연령	.246	.719	.053	.342	.734	-1.206	1.698	.981	1.020
(상수)	-5.305	6.141		-.864	.393	-17.747	7.138		
2									
성별	.321	1.369	.027	.234	.816	-2.454	3.095	.871	1.148
연령	.010	.533	.002	.019	.985	-1.070	1.091	.914	1.095
A1	.953	.232	.634	4.108	.000	.483	1.422	.504	1.985
A2	.079	.249	.039	.318	.753	-.425	.583	.802	1.247
A3	.079	.114	.080	.690	.494	-.153	.310	.891	1.122
A4	.085	.193	.060	.440	.662	-.307	.477	.643	1.555
A5	.232	.179	.154	1.299	.202	-.130	.594	.848	1.180

-종속변수: 삶의 만족

A1:일자리만족도, A2:문화시설(독도), A3:사회안전, A4:공동체의식,
A5:환경수준

VI.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울릉군’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커뮤니티 웰빙 만족도가 행복 수준, 삶의 만족, 지역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경상북도 울릉군이 한국의 최동단에 위치해 있고,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 속해 있는 중요한 지자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울릉군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단체이며, 특히 독도는 영토로서의 상징적, 군사 안보적,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도는 한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독도이용법)에서와 같이 국가가 독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한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되었고, 지역사회 특성을 분석할 때 인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그간 울릉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66년 약 22,000명, 1975년 약 30,000명, 1985년 약 17,000명, 1995년 약 11,000명, 2000년 약 10,000명, 2010년 약 10,700명, 2020년 약 9,000명, 2022년 8월 기준 약 9,000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1 : 일자리만족도는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문화시설(독도)은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사회안전은 행복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경제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인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자본인 시민참여가 주관적 삶의 질(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서인석 외(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건강과 미래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소득은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 터전의 사회 안전이 확보될 때 지역민의 행복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울릉군은 60세 이상의 행복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1인 독거노인을 위한 선별적 고령층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울릉군은 독도를 포함해 중요한 군사 안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회 안전에 대한 보장이 확보될 때 행복감이 더욱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반 균열과 침하에 대한 준비, 안보 준비 태세 강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설 2-4 : 공동체의식은 지역 소속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산업화, 정보화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Tönnies,1999; Goudy, 1992)해서 과거에 비해 지역공동체가 파괴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위해선 연령대별로 공동체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설계 및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가설 3-1 : 일자리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고, “가설 3-2 : 일자리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문화시설(독도)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 사회안전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 일자리만족도는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 환경수준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결과는 지역 생활환경 중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이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기영화&정서린(2018)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현재 울릉군의 경우 환경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와 부는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리지만, 가족관계, 정서적 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에 목격(North&Cronkite, 2008)되기도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 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구 소득 구간을 고려한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기영화·정서린·현승숙, 2019, 「커뮤니티웰빙이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23(3): pp.203-22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47호」, 세종특별자치시: 법제처.
- 기영화·정서린, 2018,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지방행정연구, 32(2): pp.183-210.
- 박정민·이휘영·최성숙·이유진, 2013, 「청년 주도 지역사회역량강화 전략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 지역사회 소속감,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3: pp.65-94.
- 서인석·기영화·우창빈, 2015, 「지방정부 가치척도로써 주관적 삶의 질 증진과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의 관계: Kee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6자본요인을 적용하여」, 한국행정연구, 24(4): pp.29-66.
-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pp.313-337.
- 통계청, 2022, 「장래인구 및 율령군 인구」.
- 통계청, 2022, 「율령군 시민사회조사」.
- 통계청, 2022, 「웅진군 시민사회조사」.
- e-나라지표, 2022, 「맞벌이가구 비율」.
- e-나라지표, 2022, 「지역사회 소속감」.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etin*, 95(3): pp.542-575.
- Forjaz, M. J., Prieto-Flores, M.-E., Ayala, A., Rodriguez-Blazquez, C., Fernandez-Mayoralas, G., Rojo-Perez, F., & Martinez-Martin, P., 2011, Measurement properties of the Community Wellbeing Index in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20(5): pp.733-743.
- Goudy, W.J.,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a Rural Region, *Rural Sociology*, 55(2): pp. 178-198.
- Ilić, I., Milić, I., & Aranđelović, M. 2010, Assessing quality of life: Current approaches, *Acta Medica Medianae*, 49(4):pp52-60.
- Lenore Manderson., 2005, Rethinking wellbeing, *Acta Medica Medianae*, Australian Public Intellectual Network.
- Merriam,S.B.,Caffarella,R,S.,& Baumgartner,L., 2006, Learning in Adulthood: A

- Comprehensive Guide, 3rd Edition. San Francisco,CA:Jossey-Bas.
- North, R. J., Holahan, C. J., Mos, R. H., & Cronkite, R. C., 2008, Family support, family income, and hapines: A 10-year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pp.475-483.
- Suh, E., Diener, E., & Fujita, F., 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pp.1091-1102.
- Smits, J. & Hoekstra, R.,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tatistics Netherlands Better Life Index*.
- TÖnnies, F., 1999, *Communities and Societies*.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Grundbeg -Riffeder Reinen Soziologie]. (Lim Jung-won), Beijing: Business Press(1987), pp.5-10.
- World Happiness Report, 2021.